

생활체육대축전 내일 팡파르

부산시 일원서 3일간 열전
동호인 화합·우정의 한마당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201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부산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1년부터 개최된 생활체육인들의 종합축전으로 16개 시·도에서 선수 및 임원 2만 3000여 명이 참가하며, 부산시민 2만 7000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등 총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치러진다.

대전시는 50개 종목 중 일반종목 23개, 민속종목 2개, 시범종목 4개, 대학동아리종목 2개, 장애인종목 3개와 전시종목 1개 등 모두 35개 종목에 걸쳐 선수 529명, 임원 138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7명의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충남은 일반종목 24개, 민속종목 3개, 시범종목 7개, 전시종목 1개 등 35개 종목 625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경기 종목(50개)

▲일반종목=검도, 게이트볼, 농구, 국학기공, 당구, 등산, 배구, 배드민턴, 보러빌딩, 볼링, 생활체조, 스킨스쿠버, 야구, 육상, 합기도, 인라인스케이팅, 풋살, 패러글라이딩, 족구, 테니스, 탁구, 자전거, 낚시, 축구, 장구, 태권도 등 26개 종목

▲민속종목=씨름, 태권, 줄다리기 등 3개 종목

▲시범종목=승마, 궁도, 스퀘시, 그라운드골프, 윈드서핑, 골프, 사격, 라켓볼, 국무도, 철인3종경기 등 10개 종목

▲대학동아리=농구, 축구 등 2개 종목

▲장애인종목=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당구 등 6개 종목

▲전시종목=본볼(장애인), 우수, 파크골프(장애인)

▲정식종목에는 일반종목과 민속종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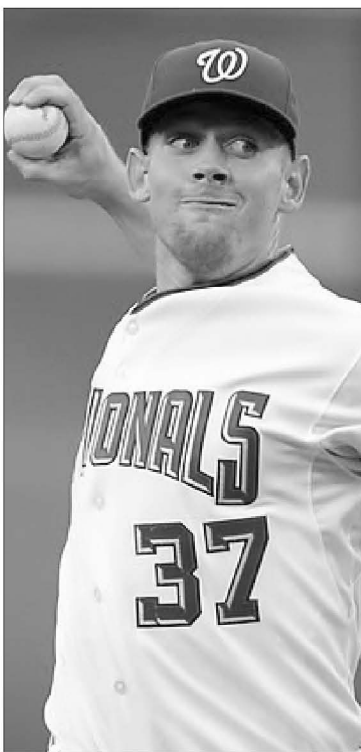
경기는 12일과 13일 2일간 종목별로 경기가 진행되며 종합 시상 없이 종목별로 시상하게 된다.

대축전은 13일 오후 2시 30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린다.

11회째를 맞는 내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인천시에서 치러진다.

도청주 기자 dcllove@ggilbo.com

‘괴물우완’ 스트라스버그 데뷔전 14K



역대 미국프로야구 최대 계약금인 1510만 달러를 받고 워싱턴 내셔널스에 입단한 우완투수 스트라스버그(22)가 데뷔전에서 삼진 14개를 쉼아내며 승리를 안았다.

스트라스버그는 9일 워싱턴 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출전 1개 포환 안타 4개를 맞고 2점을 뒀지만 타선이 1-2로 뒤지던 6회말 3점을 뽑아 5-2로 이기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특히 최고시속 159km짜리 공속구를 앞세워 올 시즌 메이저리그 한 경기 최다인 삼진을 14개나 잡아냈고 볼넷을 1개도 허용하지 않는 위력적인 투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스트라스버그는 1971년 J.R 리처드(휴스턴·15개) 이후 데뷔전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뒀었다. 94개를 던져



추신수, 멀티히트... 6경기 연속안타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루타를 치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추신수는 9일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루타 2안타를 때리며 득점도 하나 올렸다.

추신수의 타율은 0.282에서 0.288로 높아졌다.

추신수는 2루 후니 페달타타석 때 3루수 애드리안 벨트레의 수비 실책을 틈타 홈을 밟았다. 시즌 32번째 득점으로 추신수는 팀 득점 1위를 지켰다. 클리블랜드는 2-3으로 지면서 최근 3연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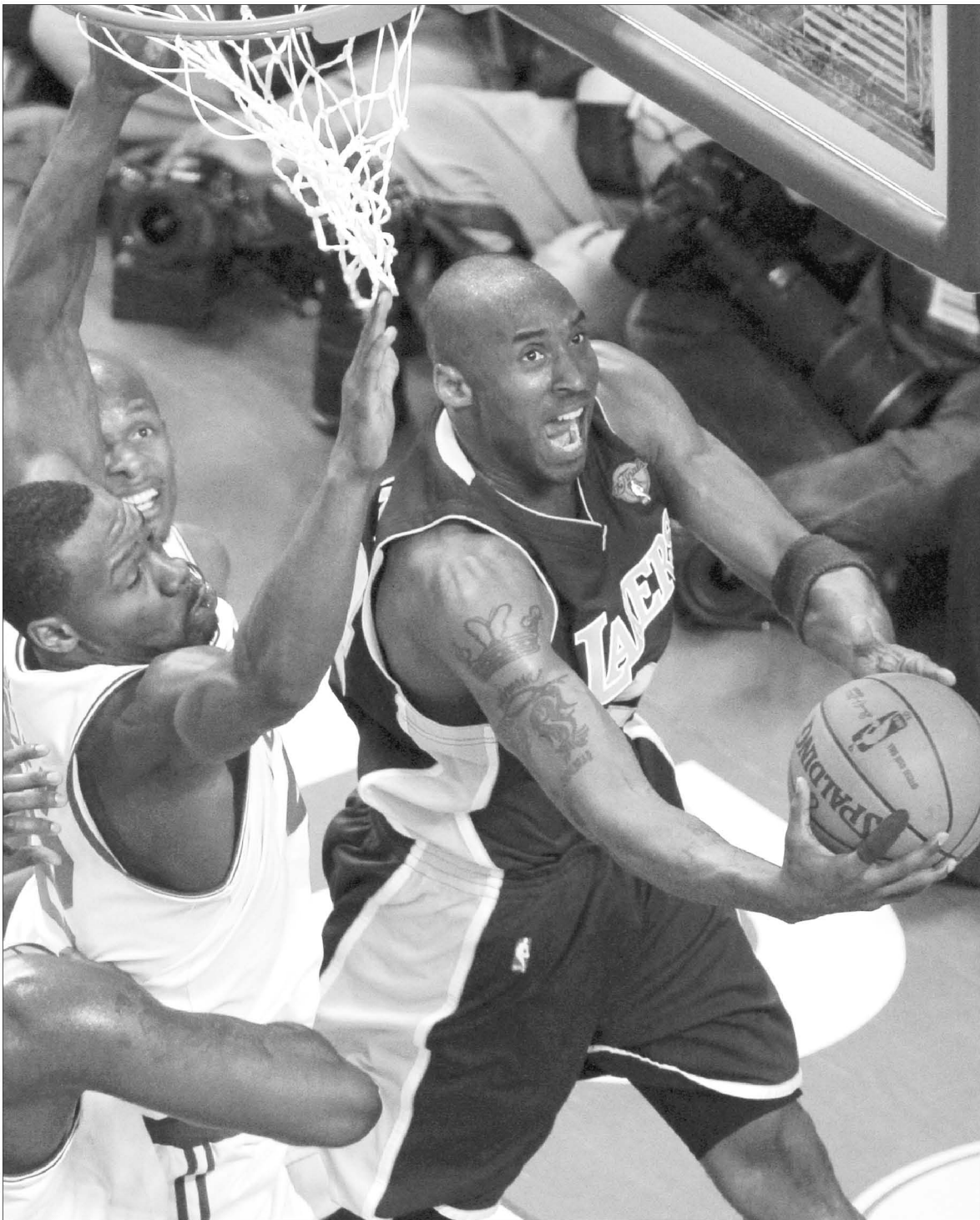
65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고 벵다로 처리한 마지막 10타자 중 7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1회초 첫 타자 앤드루 매커첸을 상대로 초구 156km짜리 공속구를 뿌려 4만여 팬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스트라스버그는 이날을 더할수록 빠른 볼을 던졌다.

샌디에이고 펄리츠나아주립대에서 쥔 때 13승 1패, 평균자책점 1.32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109이닝 동안 삼진을 195개나 잡아챈 스트라스버그는 지난해 신인 드레프트에서 전체 1번으로 워싱턴에 지명됐다.

워싱턴은 2001년 마크 프라이어가 세운 최대 계약금(5년 1050만 달러)을 넘은 4년간 1510만 달러를 스트라스버그에 안겼고 스트라스버그는 메이저리그에서 7승2패 평균자책점 1.30의 뛰어난 성적을 남기고 최근 바리크에 올라왔다.

연합뉴스



불가능을 가능으로...

LA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가 9일 보스턴에서 열린 NBA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보스턴 선수들의 브로킹 슈를 뚫고 리버스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코비 29득점 ‘필필’ LA레이커스 2승



LA 레이커스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29득점 활약을 앞세워 2009-2010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에서 먼저 2승을 거뒀다.

레이커스는 9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TD가든에서 열린 보스턴 셀틱스와 원정 3차전에서 91-84로 이겼다. 2승 1패가 된 레이커스는 유리한 고지에서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4차전을 맞게 됐다.

이날도 승부는 4쿼터 막판에서야 갈렸다. 82-80으로 근소하게 앞서던 레이커스는 브라이언트의 중거리슛과 데릭 피셔의 3점 플레이를 묶어 종료 1분 40초 전에 87-80으로 훌쩍 달아났다.

보스턴은 종료 40초 전 폴 피어스가 골밑 돌파를 성공한 뒤 추가 자유투를 얻었으나 이를 놓치 못했고 어렵게 따낸 공격 리바운드도 케빈 가넷의 실책으로 공격권을 레이커스에 넘겨줬다. 위기를 넘긴 레이커스는 이후 자유투 4개를 넣어 승리를 지켰다.

레이커스는 브라이언트가 29점, 7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피셔가 16점을 보탤었다. 파우 가솔도 13점, 10리바운드로 대활약을 펼쳤다.

2차전에서 3점슛 8개를 터뜨려 NBA 챔피언결정전 사상 한 경기 최다 3점슛을 넣었던 레이 앨런이 이날은 야투 13개를 모두 실패하는 극심한 슈팅난조에 시달렸다.

3점슛 8개, 2점슛 5개를 던졌지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투로만 2득점을 올렸다.

2차전에서 6점으로 부진했던 가넷이 25점, 6리바운드로 힘을 냈으나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주성철·김학선, 한국 사격 위상 드높였다

스페인 국제사격월드컵입상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스페인에서 열린 2010 IPC 스페인 국제사격월드컵대회에서 충남장애인사격연맹 소속 주성철, 김학선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 한국 대표로는 충남장애인사격연맹 소속 주성철, 김학선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놀

라운 실력을 발휘했다.

주성철은 이번 대회에서 ▲R1 공기소총 입사 단체전 1위 ▲R3 공기소총 복사 단체전 1위 ▲R6 화약소총 복사 단체전 1위 ▲R7 화약소총 3자세 단체전 1위를 차지했고, 김학선은 R1 공기소총 입사 개인전 3위를 거머쥐며 충남은 물론 한국의 사격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도청주 기자 dcllove@ggilbo.com

당진정보고, 중별배드민턴선수권 준우승

당진정보고등학교가 제53회 전국여름철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겸 제18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참가선수 선발전'에서 제주사대부고에 패해 아깝게 대회 준우승에 머물렀다.

당진정보고는 12일까지 8일간 전남화순에서 열린 대회에서 예선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8일에 끝난 참가선수 선발전'에서 제주사대부고에 0-3으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도청주 기자 dcllove@ggilbo.com

회장기쟁탈 전국중고체조대회

12일부터 사정공원서 열전

전국의 중·고등학교 체조 꿈나무들이 대전에 한데 모인다.

제37회 회장기쟁탈 전국 중·고 체조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사정공원 인라인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중·고등부 선수 200여 명과 임원 100여 명 총 300여 명이 참가해 이틀간의 열전을 펼친다.

남자 종목은 링, 도마, 마루, 평행봉, 철봉, 안마 등이 진행되고 여자 종목은 마루, 도마, 평균대, 이단평행봉 등이 전개된다.

제37회 회장기쟁탈 전국 중·고 체조대회는 대전의 전국대회 경기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도청주 기자 dcllove@ggilbo.com

오늘의 경기

- ▲프로야구=LG-한화(잠실) 넥센-롯데(목동) SK-삼성(문학) KIA-두산(광주) 이상 18시30분
- ▲배드민턴=전국여름철중별선수권대회(10시·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 ▲정구=제46회 국무총리기 겸 중별선수권대회(10시·순천팔마정구장)
- ▲골프=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제주 옐리시안골프장)
- ▲양궁=국가대표 5차 선발전(9시·대릉선수촌)
- ▲유도=전국청소년선수권대회(9시·강원 양구문화체육관)
- ▲럭비=대통령기 전국 중별 럭비선수권대회(15시·경산 송화럭비구장)
- ▲조정=장보고기조정대회(7시30분·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
- ▲요트=코리아매치컵대회(9시·화성시 전곡항)

R.G.O애드에서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대전광역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종합광고



1. 버스내 LED문자광고

-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 광고
- 전자문자 광고이기에 시선집중 효과가 뛰어남
- 광고주의 만족도가 높고 타 광고매체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효과와 저렴한 가격

2. 버스도착안내 단말기광고(이미지 광고, 동영상광고)

대전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200개소에 설치된 안내단말기를 이용한 광고

A. 이미지광고

- 광고대상 : 1화성 또는 일정기간 광고
- 학교, 채용, 영화, 연극, 기업, 제품, 이벤트

B. 동영상광고

- 광고대상 : 기업이미지 CF광고 또는 제품 CF, 영화, 비디오

3. 시청앞 환승정류장 패널 광고

- 환승정류장 패널광고판의 사양 : 1700mm×2300mm
- 광고종류 : 회사이미지광고, 홍보광고 등

